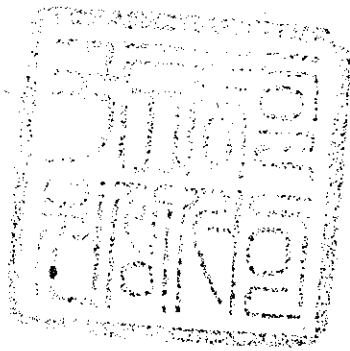


# 北韓의 教育과 政治思想戰力

1975. 9.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5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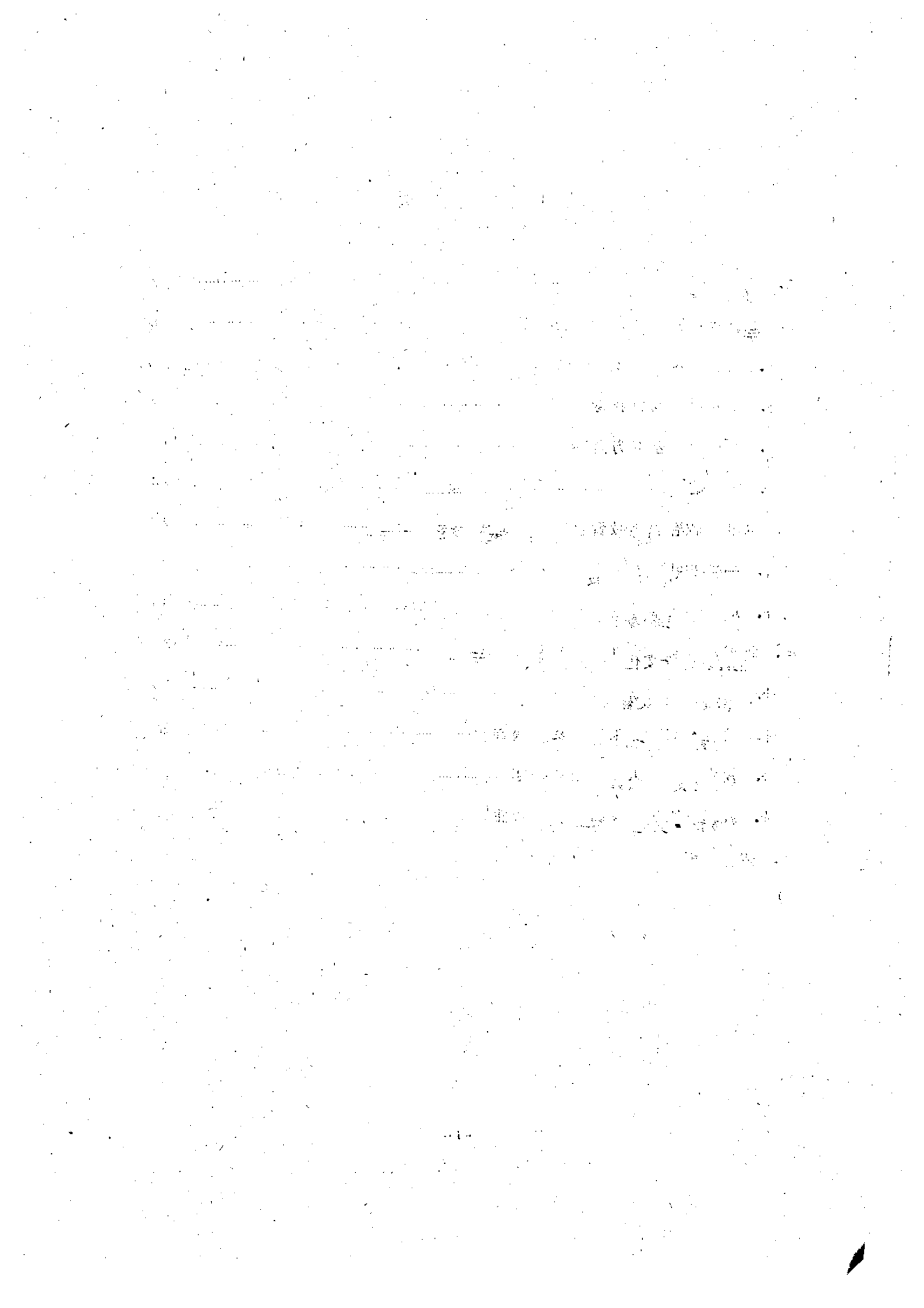
1975. 9.

최 광 석



# 目 次

1. 序 論 .....	3
2. 学校教育의 目標와 基本方針 .....	6
가. 共產主義的 教育理念 .....	6
나. 北傀의 教育目標 .....	9
다. 教育의 基本方針 .....	19
라. 小 結 論 .....	24
3. 軍의 政治 思想教育目標와 実態 .....	27
가. 一般的인 思想教育 .....	27
나. 軍의 思想教育 .....	31
4. 北傀教育·文化의 反民族性 .....	39
가. 教育과 文化 .....	39
나. 教育·文化政策의 變遷過程 .....	40
다. 教育文化政策의 当面課題 .....	44
라. 教育·文化政策의 反民族性 .....	46
5. 結 論 .....	49



## 1. 序 論

! 單一民族으로서 유구한 歷史를 자랑하는 우리 겨레가 兩斷된 國土에서 生活하게 된지도 벌써 30餘年이 경과하였다.

상봉할 수 없는 政治理念과 社会制度下에서의 오랜 세월은 南·北韓 住民들의 價值觀과 行動慣習에 있어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게 하였다.

특히 南·北 젊은 세대들의 精神世界는 같은 선조의 피를 이어 받았을까를 의심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다.

北韓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이들과는 판이한 世界觀과 가치기준을 갖게 된 데 있어서는 共產主義的 社会風土와 함께 北傀의 教育政策이 크게 作用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自由社会의 教育과 共產社会의 教育에 있어서 根本的인 差異点을 自由社会의 教育이 被教育者 위주로 進行된다면 共產社会의 教育은 철두철미 教育者 위주 즉 共產黨 위주로 進行되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레닌」은 1918年 8月28日, 「教育活動家 第1回 全러시아大會」에서 다음과 같이 演說한 바 있다.

「.....부르조아國家가 文化的이면 文化的일수록 그 나라는 學校라는 것이 政治밖에서 있고 社会全体에 奉仕할 수 있다고 主張하면서 점점 巧妙한 거짓말을 하기에 이르렀다. ....

學校分野에서 우리들의 일은 資本家階級을 타도하기 위한 鬪爭과

똑같다. 生活에서 유리되고 政治에서 유리된 学校란 허위이며 위선이라고 우리들은 공공연히 성명한다. ……………」, (해년全集, 日本대원서점판 28卷)

따라서 共產治下에서는 基本的으로는 다 그러하지만, 특히 北傀治下에서는 教育에 있어서 가장 強調되고 있는 것은 「이데올로기 教育이며」 무엇보다도 教育의 당파성을 主張하고 있다.

金日成은 1961年 4月25日 이른바 「全國 教育일군열성자 大會」에서 「靑少年 教養에서 教育일군들의 任務에 대하여」라는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敎員들은 父母들을 대신하여 靑少年들을 黨과 國家가 要求하는 훌륭한 인재로 키워내는 무거운 任務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 學生들을 共產主義者로 教養 育成하기 爲하여서는 무엇보다도 教育者들 자신이 훌륭한 共產主義者로 되어야 하며 革命家로 되어야 합니다. ……」고 (1961.4.26日字「로동신문」 2面)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傀의 教育은 자라나는 세대들로, 하여금 앞으로 独立的인 社會生活을 훌륭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智·德·體를 겸비한 人格의 도야에 主안점을 두고 實施되는 大韓民國의 教育과는 根本的인 差異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의 教育目標과 方針은 많은 點에 있어서 뚜렷한 對照를 이루게 된다.

本 論文은 統一에 대비한 教育의 일환책으로서 北傀의 教育實情을 把握하고, 民主統一後에 提起된 教育上 諸問題들의 效率的인 解



決과 共產主義 教育의 影響下에서 자라난 北韓 住民들의 선도책에 必要한 政策資料 研究를 主目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北傀의 教育目標와 方針을 명문화한 所謂 教育法令을 비롯한 關係法規 등 研究資料 등의 入手난으로 본 소고에서는 주로 北傀黨 및 이른바 「最高人民會議」에서 決定 또는 論議된 問題들을 中心으로 개관하지 않을 수 없었다.

法治國家와는 달리, 共產黨의 決定과 黨首의 指示는 「法令」이상의 통제력과 效能을 지닌 北傀의 條件下에서 「教育法令」에 依拠하지 않았다고 해서 問題의 核心 把握에 主觀主義를 범할 危險性이 농후했다고는 보지 않았다.

본 論文은 北傀의 教育實態 研究의 基礎作業의 하나로 착수된 것이며, 初等·中等·高等教育 등 分野別 細分研究에 따라 더욱 補完될 것이다.

本 論文에 있어서 筆者의 재복시 제함과 최근귀순자들의 구술자료도 참작하였으나, 주로 北傀의 公式文獻에 依拠하여 客觀的 判斷資料를 提供한다는 基本態度를 堅持하였기 때문에 分析이 부족한 자료나 열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가 염려된다.

그리고 本 論文은 北傀教育에 관한 理論的 分析이 아니라 實態 分析의 資料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研究를 추진하였음을 부언한다.

## 2. 學校教育의 目標와 基本方針

### 가. 共產主義的 教育理念

社會制度 이하를 莫論하고 教育은 所謂 社會의 維持와 發展에 적합한 人間形成을 그의 目的으로 하고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人間의 本質은 「社會的 諸關係의 總體」로 보는 유물사관의 一性을 是認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人間이라는 概念에는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 社會的 存在라는 點과 어떤 이상을 지닌 합목적 적인 行動의 主體라는 點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個人들의 集合體로서의 社會이나, 또는 社會의 한 構成分子 로서의 個人이나 하는 양자의 關係에 있어서 見解差異가 있을 뿐 이다.

共產主義者들은 철두철미 후자 즉 社會(集團全體)의 한 구성분 子로서의 個人(部分)의 存在價值만을 認定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 教育觀은 애당초 人間存重精神 또는 人間 自體의 긍정적 심성의 발골과 연마는 관심밖의 일이고, 共產社會의 한 成員으로서 주어진 任務와 役割을 충실히 遂行할 수 있는 人間形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레닌」은 서슴치 않고 「共產主義 倫理의 基礎가 되는 것은 共產主義를 強化하고 完成하기 위한 鬪爭이다. 그것이 또 共產主

義 教育·도야·學習의 基礎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말을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蘇聯科學 아카데미 哲學研究所의 「철학교정」은 다음과 같이 부연하고 있다.

「共產主義的 教育은 무엇보다도 먼저 政治的 教育이다. 그것은 社會主義 國家의 역량강화, 社會主義的 民主主義 發展 그리고 國家의 일상적 統治에 대중을 더 많이 인입하는 것, 社會主義 社會의 人民들의 道德的, 政治的 統一과 友好를 強化시키는 일을 돕고 있다」고,

金日成은 「全國 教育일군 열성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演說한 바 있다.

「우리의 學校教育의 目的은 共產主義 思想으로 무장되고 새 社會建設에 必要한 知識과 技術을 가진 共產主義 建設者를 키워내는데 있습니다. 共產主義 思想과 결부되지 않은 知識은 우리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共產主義를 向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共產主義的 人間形象」은 모든 共產治下에 있어서 教育의 根本 理念으로 되고 있으나 「共產主義的 人間」의 內容은 共產治下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金日成集團은 共產主義的 人間の 標準型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北傀黨 規約 第5條는 共產主義的 人間型에 관한 11個의 當적 要求를 나열하고 있는바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① 「社會主義 및 共產主義 建設을 위해 적극 鬭爭하며 社會

主義 조국의 보위

- ② 「우리 당의 사상체제로 確固히 무장하며……중파주의 가족주의 반대」
- ③ 「당의 노선과 政策을 무조건 接受하고 철저히 擁護」
- ④ 「政治 및 実務水準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努力하며 党政策을 正確히 알고」
- ⑤ 組織生活에서의 黨성 단련과 先鋒적 役割
- ⑥ 「대중과의 연계를 強化」
- ⑦ 「고상한 共產主義的 道德品性을 소유하여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소박하고 문화적이며 겸손하고 예절에 밝으며 사리와 공명을 탐내지 말고 검소하게 살며, 당 앞에서 항상 솔직할 것.
- ⑧ 勞動生活能率의 부단한 제고
- ⑨ 黨 規律의 자발적 遵守
- ⑩ 「당의 利益을 제일생명으로 알고」비판과 자아판단의 強化
- ⑪ 秘密敎守와 政治的 경각성 제고

이상은 北傀黨의 黨員으로서 遵守해야 할 義務로서 規定한 것이나, 金日成集團이 敎育을 통해서 達成하고자 한 共產主義的 人間형의 표본으로서 나열한 것이다.

金日成은 4次黨大會의 報告에서 「党中央委員會와 같이 사고하고 같이 行動하며 어떠한 어려운 環境속에서도 그와 運命을 같이하여 끝까지 鬪爭」할 黨의 수족과 같은 투사의 단련이 곧 「새형의

人間」을 養成하는 길이라고 強調한 바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共產主義的 人間으로서 제1요건 자아의식의 소원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共産黨과 共產主義를 위해서 개인의 모든 고귀한 것을 서슴 없이 바칠 수 있는 犧牲精神, 그리고 그를 수호하기 위한 鬪爭精神을 바탕으로 하는 렬사봉당의 人間을 말하고 있다.

#### 나. 北傀의 教育目標

共産治下에서는 다 그러하지만 특히 北傀에서는 共産黨의 결정과 당수의 命令·指示는 「法令」이상의 통제력과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北傀 憲法 第24條에는 「공민은 인신의 불가침을 보장받는다. 일체의 공민은 재판소의 결정 또는 검사의承認이 없이는 체포되지 아니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나, 北傀에 제질 풍처럼 되풀이된 숙청선봉에서 재판없이 生命을 잃은 數効는 헤아릴 수 없다. 이른바 「반당분자」라고 낙인이 찍히면 아무런 법 절차를 밟지 않고 체포, 처단되는 것이 北傀의 實情이다.

따라서 北傀의 教育目標에 관한 考察도 주로 北傀黨의 결정과 金日成의 演說 등에서 유추하고자 한다.

北傀의 教育의 達成하고자 하는 최종목적이——필자는 이를 教育理念이란 概念과 同一하게 使用하였다——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에 있다는 것은 上述한 바와 같다.

이 최종 목적을 達成하기 위한 教育目標가 北傀의 경우 무엇이겠는가?

自由社会에서는 教育理念 自体가 社会理念의 變遷, 人間觀의 變遷, 政治・經濟・社会・歷史 등의 現實的인 여건에 따라 變遷하는 것이지만 共產社会의 教育理念은 變遷되지 않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教育理念을 達成하기 위한 教育目標은 共產党的 路線에 따라, 시기별 중심과업에 따라 약간씩 달라져 왔고, 北傀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1946年 8월에 採択한 北傀勞動党 章程 第10項에는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人民教育의 개혁을 實施하며 각종 学校內에서의 教育和 教育事業에서 日本教育制度의 잔재를 肅清하며 財産 형편과 信望 및 性別을 불문하고 전조선인민에게 공부할 權利를 保障하는 동시에 조선민족문화, 예술 및 과학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北傀党 章程은 作成・發表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번도 개정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동 章程이 全国的 範圍에서 아직 實現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金日成集團은 誇변을 늘어 놓고 있다.

그러므로 동 章程은 實質的인 北傀党的 運營과 生理, 그리고 鬪爭目標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實効性 없는 公文에 불과하다.

따라서 北傀는 1956年 4月の 第3次 党大会에서 改定된 党規約 全文과 第1章에 實質的인 당章程의 內容을 담아 이를 代用시

키고 있다.

黨規約 全文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黨員들과 勤勞大衆을 愛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精神으로 교양하며, 朝鮮人民과 위대한 蘇聯 中國 및 社會主義 諸國가 人民들과 모든 나라 勤勞大衆과의 國際主義的 단결을 공고히 하며 우리나라의 統一獨立을 지지 성원하는 모든 나라들과 平和愛護 人民들과의 친선을 강화하며 아시아와 世界의 公同한 平和를 위하여 鬪爭한다」고

상기 구절은 北傀黨의 教育方向 뿐만 아니라 외교노선도 명기한 것이기는 하나 평화 運動은 전시 效果적인 性格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었다.

北傀黨은 창당(1945.10.10) 이래 4회의 黨大會와 2회의 代表者會議을 開催하여 黨政策의 基本方向과 總路線을 밝힌 바 있다.

그 黨大會와 代表者會議에서 討議 決定된 教育에 관한 條項들을 살펴보자.

第1次 黨大會(1946.8.28 ~ 8.30)는 北朝鮮共產黨과 新民黨이 합당하여 「北朝鮮勞動黨」으로 개편할 目的으로 開催된 大會인 만큼, 합당후의 영도권 장악에 부심한 나머지 金日成集團은 基本政策에 대한 뚜렷한 제시가 없었다.

教育部門에 관련이 있는 發言은 報告에서 金日成이 「黨의 當면 任務」를 논하면서 「…………간부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아직 간부들 이해하고 양성하며 등용하는 일을 충

政治的 경각심을 強化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에서 적대 계급과 계층을 다음 세 部類로 나누고 있다.

第1 部類는 「미제국주의의 달리에 매수된 친일파, 친미파, 민족반역자」

第2 部類는 「우리 党的 政策을 반대하는 반동적 지주와 극소수의 악질 企業家 및 악덕 상인」

第3 部類는 「미제국주의에 매수된 일부의 악질 장로와 목사」

이상 세 部類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教育하라고 金日成은 命令하고 있다.

第1次 및 第2次 党大会의 開催目的이 金日成의 權力構造를 確固히 하고, 南侵을 위한 組織整備와 思想武装에 있었던 만큼 長期的인 안목으로 教育問題를 처리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그러한 마음의 여유도 없었겠지만, 金日成集團은 38道線 以南 地域까지 적화한 후에 教育에 관한 基本方向과 对策을 確定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듯 하다.

北傀党 第3次大会(1956.4.23 ~ 2)에서 비로서 教育에 관한 具體的인 方向과 課業들이 提示되었다. (「金日成選集」 1960年版 4卷 564 ~ 565面)

「学校 教育事業에서 重要한 것은 우리 후대들을 장래 우리나라의 有能한 社会主義 建設者로 열렬한 愛國者로 教育 敎養하는데 있다.

오늘 学校教育事業의 基本 결함은 敎員들의 思想意識 水準이 낮



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어디에서 어떻게 간부를 육성하고 새 인재를 어떻게 등용했다는 이야기는 그다지 듣지 못하였다. 우리는 간부를 이해하고 掌握하며, 育成 등용하기 위해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이 時期는 記述한 바와 같이 金日成集團이 教育에 관심을 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權力鬭爭上의 複雜한 問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教育目標을 뚜렷이 提示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였다.

第2次 党大会(1948.3.27 ~ 3.30) 開催當時는 金日成集團의 정치기반이 다소 確固해졌기는 하였지만, 戰爭準備에 몰두하고 있었을 때이라 教育部門에 큰 관심을 들리지 않았다.

2次 党大会 報告에서 金日成은 党的 선전과 思想教育活動을 強化할 것을 命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党的 선전과 마르크스·레닌주의적 教育은 우리 党을 組織적으로 強化하고, 하나의 思想, 의지로 결속시키는 強力한 무기이다.....」

党的 선전활동과 教育活動面에서도 우리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일부의 이 活動을 매우 형식적으로 遂行하고 있어 党的 政策을 선전하고 黨員의 思想 理論水準을 높이기 위해 당연히 들려야 할 主義를 들리지 않고 있다. ....

党的 思想活動에서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는 勞動階級을 위시한 勞動人民에 우리나라의 과거와 現在의 狀況과 社会的 階級關係를 올바르게 認識시켜 그들의 階級意識을 높이고, 階級の 적에 대한

으며 教授內容의 科學性과 思想性이 不足하며, 教授事業에서 여러가지 形態의 形式主義와 教조주의가 表現되며, 學校管理運營에서 官僚主義的, 文書式 指導가 지속되며, 教授事業이 우리나라 政治, 經濟生活에서 유리되고 있는 그것입니다. ....

우리는 學校教育의 質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결정적 고리가 敎員들의 思想 意識水準을 높이며 그들의 當성을 단련하는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敎員 對열내에서 黨 思想事業을 더욱 強化하여야 하겠읍니다. ....

教授內容의 思想 理論的 水準과 教授能力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관심을 돌리며..... 具體的인 對策을 세우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記述한 北隗의 教育實態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60年代에 들어와서 本國에도 올라선 北韓의 教育은 第4次 黨大會(1961.9.11 ~ 9.18)에서 決定된 方向과 目標에 依拠하여 오늘날에 이르 고 있다.

金日成은 4次黨大會 報告에서 敎育部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敎育部門에는 근래 대중을 自然과 社會에 대한 正確한 知識과 올바른 觀點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근로대중의 文化·技術水準을 높일 任務가 부여되고 있다.

人民敎育機關은 學校를 실제 生活에 한층 接近시켜 敎育과 生産 勞動을 緊密히 결부시켜 靑少年을 科學·文化의 최신 成果와 共產

主義 世界觀으로 教育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世代를 黨과 革命을 위하여 충실하고 全面的으로 발전된 새 형의 人間으로 育成하여 우리 社會의 教養있고 자각있는 勤勞者의 대열을 부단히 보충하여야 한다.....」고

그밖에 教育部門의 重要 課業으로서 1961 ~ 67年의 7個年計劃 期間에 9年制 技術義務教育의 完全實施와 高等教育의 強化, 그리고 成人教育을 發展시킬 것을 提起하고 있다.

「技術人才」의 養成을 나라의 生産力 發展과 技術革命의 빠른 速度를 따라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이 이상 前進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金日成은 7個年計劃 期間에 46萬名의 技師와 中等전문가를 養成하며, 約 18萬名의 大學卒業生인 技師와 전문가를 養成하라고 命令하고 있다.

특히 당장 필요한 機械, 電氣, 化學, 地質, 運輸, 輕工業, 水産, 農産, 畜産, 保健部分등의 專門家 養成에 重點을 두라고 金日成은 부연하고 있다.

北傀黨 第4次大會에서 한 金日成의 報告에는 共產主義的 人間형에 대하여, 앞서 1961.4.25의 「全國 教育일군열성자대회」에서와 1958.11.20의 「전국 市·郡黨委員會 黨動員 講習會」에서 말한 것을 종합 淸査하여 必須要件들을 提示하고 있다.

첫째, 勞動을 사랑하는 精神을 소유하도록 教育 教養하라고 指示하고 있다.

「勞動을 사랑하는 精神은 社會主義 共產主義 社會의 새로운 인

間의 가장 基本的인 特質의 하나이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둘째, 集團主義 精神을 가질 것을 強調하고 있다.

個人主義와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勤勞者들로 하여금 國家와 社會의 利益을 尊重하고, 서로 돕고 協力하도록 하며, 「하나를 全體를 위하여 全體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를 단층 높이 걸고, 北傀地域을 「붉은색으로, 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鬪爭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 「社會主義的 愛國主義」와 「푸를레타리아」國際主義 精神을 가지도록 敎育하라는 것이다.

金日成은 「자기들의 향토와 조국을 사랑하고 자기들의 직장과 거리와 마을을 훌륭하게 만들고, 끝까지 祖國을 지키려는 精神으로

勤勞者들을 敎養해야 한다. 우리들은 平和와 社會主義의 共同偉業을 지향하는 싸움을 통하여 社會主義 세국의 人民들과 세계 각국의 勞動階級과의 親善과 단결을 強化하는 精神으로 勤勞者들을 敎養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향토와 조국은 어디까지나 社會主義 制度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自由社會에서 強調하고 있는 향토애와 조국애와는 그 性格을 完全히 달리하고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다.

네째 사상개조와 함께 「共產主義的 道德品性을 배양하는 敎育活動을 반드시 黨의 政策과 路線을 관철시키는 鬪爭과 密接히 결부시켜 進行할 것」을 強調하고 있다.

北傀黨 第4次大會에서 결정된 政治路線은 대체로 오늘까지 持續되

고 있으나, 1966.10.5 ~ 12에 있는 第2次 党代表者會議에서 약간 수정되어, 그것이 「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4次會議(1967.12.14 ~ 12.16)에서의 金日成의 소위 「10대정강」의 形式으로 發表되었다.

「10대정강」의 여섯째 항목은 다음과 같은 題目으로 되어 있다.

「공화국정부는 朝鮮勞動黨의 주체사상에 튼튼히 依拠하여 나라의 科學技術 發展을 促進하며 社會主義的 文化를 建設하기 위하여 계속 頑強히 鬪爭할 것입니다」고

여기에서 金日成은 기술공학 특히 機械工學과 電子工學을 빨리 發展시키는 것은 現시기 매우 중요한 問題로 나서고 있다고 指摘하고, 科學技術教育의 質을 높일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리고 그해 4月1日부터 시작되고 있는 9年制 技術義務教育을 質적으로 잘 實施하는 것이 「社會主義 文化建設」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이리하여 「技術人才養成事業을 나라의 生産力 發展과 技術革命의 빠른 速度에 따라 세워야 하겠다」고 「10대정강」에서 말하고 있다.

계속해서 金日成은 「후대교양과 간부양성에서의 成果는 그 直接的 担当者인 敎員들의 役割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敎員들속에서 학습 기풍을 세워 그들의 政治理論 水準과 專門知識 水準을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敎授敎養事業을 더욱 質적으로 進行하도록 하여야 하겠읍니다. 이와 함께 敎育 事業을 發展시키기 위하여 敎育機關들의 物質的 토대를 잘 꾸려주는데 全국가적, 全사회적 관심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고 말하였다.

金日成이가 지금까지 教育에 대하여 여러차례 言及하였고, 敎員의 「당성, 계급성, 인민성」에 대해서도 強調하였지만, 학습기풍을 樹立하도록 命命한 것은 처음이며, 教育機關들의 物質的 토대로 잘 꾸러라고 指示한 것은 거의 없었다.

教育들은 잡다한 비교육부문의 일들에 動員하는 것을 可能한 삼가고 研究할 수 있는 時間과 條件을 지워주도록 하라는 뜻으로도 解釋되는 金日成의 발언은 지금까지의 思想教育 일변도에서 지능교육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도 사료된다.

9年制 技術義務教育은 다분히 선전효과를 目的으로 그를 實施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實施 期日을 여러차례 연기한 끝에 단행한 것임은 위에서 이미 言及한 바 있다.

그러나 9年制 技術義務教育 實施로 北韓의 初等 및 中等教育의 目標은 많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다.

「最高人民會議」 第3期 6會議 (1966.11.22 ~ 24)에서 9年制 技術義務教育에 관해 討議할 때 「제1부수상」 金一은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9年制 義務教育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一般 敎育과 技術敎育 및 生産勞動을 結合하여, 세 세대를 전면적으로 發展된 새형의 인간으로 準備시키는데 있습니다. 義務敎育의 연한이 길어짐에 따라 敎育內容이 顯著히 改善되며, 무엇보다도 義務敎育 學校의 一般敎育이 훨씬 強化될 것입니다.

義務敎育을 마친 후대들의 많은 부분이 直接社會에 나가게 될 것

을 考慮하여 一般 教育의 水準은 學生들이 卒業後 共和國公民으로서 活動하며, 나라의 社會主義 建設에 參加하는데 必要하고도 充分한 知識을 주는 方向에서 規定하려고 합니다.

義務教育學校의 教育內容에서 先차적 意義를 갖는 것은 一般教育이며, 9年制 義務教育은 尙當 一般教育을 爲主로 하여 實施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一般教育만으로는 後代들을 當면한 社會主義 建設에 準備 시킬 수 없으며, 全面的으로 發展될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길러낼 수 없습니다. 오직 豊富한 一般知識과 함께 現代的 技術을 아는 사람이라야 새 社會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컨대 新設된 5年制 中學校와 2年制 高等學校는 人文系와 技術系를 混合한것 같은 性格을 띠게 되는 北傀 獨特한 學校로 構想한 것이다.

#### 다. 教育의 基本方針

北傀黨 第4次大會 報告에서 金日成은 「...共產主義 教養을 革命과 密接히 結부시키며 模範으로 되는 事實로서 사람들을 感化시키는 것을 基本的인 方法으로 하면서 大衆教養 活動을 勤勞者들의 生産的 實踐과 直接 結부시켜 遂行하는데 큰 힘을 들였다고 말한 바 있다.

金日成의 이 發言은 北韓住民들을 세뇌教育하는데 適用할 基本方法일 뿐만 아니라 이는 學校 教育에서도 반드시 適用해야 할

基本方針으로 指示한 것이다.

金日成集團은 肯定的 模範으로 被教育者들을 感화시키는 것을 教育의 基本方法으로 삼되, 그 肯定的 模範을 金日成과 그의 심복부 하들이 1930年代 滿州 一帶에서 遂行했다는 이른바 「抗日빨치산 鬪爭」 過程에 이룩한 소위 「革命傳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最近 北傀는 學校教育의 質을 높이라고, 各級學校 敎員들에게 強力히 要求하고 있는데 그 방도로서 다음 問題들을 提起하고 있다.

첫째 「學校教育의 質을 높이는 데 있어서 가장 決定的인 意義를 가지는 것은 教育에서 主体를 徹底히 確立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教育에서 主体를 確立하기 爲해서는 「朝鮮을 잘 알도록 가르치는 것」과 「後代들을 우리 黨의 路線과 政策으로 徹底히 武装시키는 것」이라고 指摘하고 있다.

둘째 「基礎科學과 基礎技術教育을 強化하는 것」

數學, 物理學, 化學, 生物學 등의 敎授에 特別히 많은 關心을 돌리라고 北傀는 中等教育에 要求하고 있다.

셋째 社會 科學科目을 強化할 것.

「社會科學 科目들은 後代들을 우리 黨의 思想과 마르크스·레닌主義 世界觀으로 武装시키며 社會政治生活에 準備시키는 重大한 使命을 지니고 있습니다. 各級 學校들에서는 社會科學 科目 敎授의 科學思想性을 더욱 높임으로써 學生들에게 社會發展의 法則, 階級과 階級鬪爭, 過去와 現在의 우리 人民의 生活 그리고 世界에



關한 多樣하고 豊富한 知識을 주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發言은 記述한 北傀의 教育体制 改編의 숨은 目的의 하나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하겠다.

네째 國語教育을 改善할 것.

國語教育은 社会科学科目들의 教育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學校들에서는 教育用語를 다듬어 쓰는 同時에 學生들에게 우리말과 글의 모든 要素들을 正確히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어 려부터 우리 말을 아름답고 유창하게 文化的으로 하며 글을 훌륭 하고 숨겨있게 지을 수 있도록 熟練시키는데 힘을 기울여야 하겠 습니다 ]고 말했다.

다섯째 教育과 生産勞動을 密接히 結合 시킬것.

여섯째 教育方法을 改善할 것.

[ 들이먹이는 方法을 버리고 새로운 교수방법인 깨우쳐주는 方法 을 全面的으로 導入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學校教育을 더는 發展시 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깨우쳐주는 教授方法은 敎員이 教授過程에서 學生들의 自覺性과 창발성을 高度로 발양시켜 그들 自身이 사물의 本質을 認識하도 록 인도함으로써 學生들에게 獨自的으로 思考하며 배운 知識을 자유롭게 活用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는 教授方法이다 ]고.

개발식 교수방법에 依해 獨自的으로 思考하며 배운 知識을 應 用하라고 強調하고 있는 것은 매우 깊은 뜻을 지닌다.

「黨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말하며, 行動하는 人間이 되자!」  
는 基本 구호가 除去된 것을 勿論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最近  
에는 더욱 요란스럽게 소위 「唯一思想」으로 精神武裝하라고 金日  
成集團이 北韓住民들에게 要求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계발식교육은 어디까지나 制限된 範圍 內에서의 独自の인  
思考와 活動을 할 수 있도록 뜻함은 두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종래의 주입식 교수방법에 比하면 대담한 措置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措置는 어떠한 狀況下에서도 共産黨과  
金日成에게 이로운 言動으로 訓練시킴으로써 利用價値의 提高를 目  
的으로 하고 있다.

以上은 教育體系 改編과 關聯해서 北傀가 1967年 4月 1日 以後  
教育의 質 提高를 爲한 基本方針으로 되고 있다.

다음으로 1967年 以後의 北傀의 教育에서 注目을 要하는 것은  
情緒教育을 요란스럽게 떠들기 始作한 点이다.

從래의 무미건조하고 살벌한 教育方法으로는 다감다정한 젊은 世  
代로 하여금 극에서 극으로 달리는 황포성과 편협한 思考方式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經驗을 통해서 알게 된 金日成集團은 指  
導體系가 문란해지고 권력구조에 變化가 생기는 境遇에는 北韓의  
젊은이들이 反對勢力으로 轉換될 수도 있다는 것을 念慮하고 있는  
듯하다.

모든 學校에서는 芸能科目教授의 質을 顯著히 높이는 同時에  
多様な 形態와 方法으로 그들의 과의 芸術活動을 積極 組織하여

중으로써 우리의 後代들이 모두 다 革命的 熱情과 품만한 정서와 높은 素養을 가진 고상하고 文明한 사람으로 자라 나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北傀의 教育目標은 단적으로 말하면 자라나는 젊은 世代로 하여금 共產主義 役軍으로 金日成의 사병으로 養成하는데 있음은 表現은 다르지만 北傀가 公言하고 있는 바와 같다.

따라서 金日成에 對한 신격화운동은 教育部門의 基本方針으로 되고 있음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와 같은 教育의 基本方針은 모든科目의 敎修課程을 통해서 具現되어야 한다고 強調되어 왔고 또한 北傀의 各級學校 敎員들은 온갖 억지와 웃지 못할 喜劇을 演出하면서 힘껏 努力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교단에 설 수 없는 狀況下에서 生活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最近에는 거의 狂亂적으로 金日成偶像化의 한 방도인 소위 敎修課程을 통한 黨政策 敎養을 強化하자」고 의치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集團이 滿足할만한 처지에 이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最近 「로동신문」에는 이 問題에 論說을 掲載하고, 敎員들의 「낮은 사상잔재」 때문에 不滿足하게 進行되고 있다고 指摘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靑少年 學生들은 黨의 思想政策으로 徹底히 武装시키는 것은 革命的 将来運命을 決定하는 關鍵적 問題이다. 따라서 이 問題는 가장 重要하고 절박한 課業이며, 革命的 후비대를 길러내는 學校教育의 目的을 實現하는 根本 방도의 하나로 된다……」고.

이와같이 北傀는 最近 더욱 요란스럽게 소위 「憲政策敎養」, 「唯一思想」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東歐 共產國家들에서 번지고 있는 自由化의 물결이 北韓에 침습하여 거센 파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며, 남침을 爲한 戰爭準備에 必要한 精神武装과 관련되고 있는 것으로도 사료된다.

## 라. 小 結 論

이상에서 간략하게 考察한 바와 같이 北傀의 教育目標과 方針은 兩韓의 그것과는 많은 差異點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은 北傀의 教育目標과 方針이 어느 정도 실천되고 있으며, 北傀가 의도한 결과가 어느 정도 達成되고 있는가의 正確한 效果 測定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대체로 成功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資料들에 의거하고 있다.

첫째, 인간소모품의 신세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124군부대를 비롯한 여러개의 남침 돌격대 組織이 별다른 반발없이——적어도 표면상으로는——可能했고, 남파된 무장공비들의 소행이 바로 北傀黨이 바라는 方向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勿論 124군부대를 비롯한 특수부대의 성원들은 北傀가 가장 신임할 수 있다고 인정한 「출신성분」 즉 정치배경과 철저한 訓練을 거쳐 養成된 예외 現狀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략적 人員들을 그와 같은 目的으로 계속 動員할 수 있는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事實은 北傀가 설정된 教育目標을 어느정도 達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둘째, 利用價值를 높이기 위한 北傀의 教育은 비록 조악한 질을 갖춘 기술인재이기는 하나 莫大한 수를 確保하고, 北傀의 모든 分野에서 共產主義的 教育을 받은 소위 「새로운 人間」이 核心的인

役割을 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세째, 비록 전시효과를 노린 처사라고 할지라도 공산권내에서 가장 長期的인 義務教育制를 實施하고 있고, 「學生社會義務勞動」에 의한 무보수노동으로 자금을 충당하고 있고, 학부형을 수탈해서 한 것이기는 하지만 無科教育制와 광범위한 獎學金制를 實施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네째, 蘇聯을 위시한 동구 共產國家들의 거의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自由化, 民主化運動이 힘차게 展開되고 있으며, 그 선두에는 知識人과 學生들이 서 있는 것과는 달리 北韓에는 아직 눈에 띄울 정도로 그러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事實이다.

이는 北傀의 철저한 폐쇄주의와, 감시조직의 作用이 크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한편 思想教育 위주의 北傀의 教育目標 및 方針 設定과 그 集行이 어느 정도 主軸했다고 사료된다.

신의주 학생의거, 함흥 학생의거 이후 北韓地域에서 表面化된 大規模的인 학생의거가 거의 없는 것도 그 原因을 폭압과 감시에만 歸着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요컨대 北韓 젊은 세대와 教育學的인 立場에서 볼때는 北韓의 教育은 연민과 비난의 대상으로 된다. 그러나 金日成集團의 立場으로 볼때는 소기의 目的을 達成하고 있는 셈이다.

비록 타의적이며 강압적인 주입식 教育方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北韓 젊은 세대들의 直觀과 思考方式이 우리 젊은이들과 다른 바탕위에 樹立되고 있다는 事實은 統一過程에 있어서나 民主

統一後에 여러 問題들을 提起시킨다.

따라서 그와 같은 問題들의 正確한 처리와 政策樹立을 위해서는 北韓 젊은이들의 變化된 價值觀과 行動慣習의 特性이 무엇이며, 그의 形成 過程에 있어서 学校教育, 社会教育, 家庭教育이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를 具體적으로 把握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北傀에서 發生하는 계반 問題들이 다 그러하지만, 北傀 教育問題 研究에 있어서 個別的인 特殊現狀으로서가 아니라, 全体的인 北傀問題의 한 단면으로서, 즉 보편적인 現狀의 일부로서 教育問題들 考察하는 것이 問題의 본질을 把握하는데 지름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방향설정과 政策決定에 있어서 대중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거의 封鎖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선 北韓의 教育目標과 方針부터 살피며, 이를 基礎로 하여 앞으로 各級学級別, 学科別, 科目別 目標과 方針이 研究 檢討되어야 하겠고, 나아가서 初·中·高等教育的 실제가 綜合·分析되어야 할 줄 생각한다.

### 3. 軍의 政治思想教育目標와 實態

최근 北傀는 金日成의 偶像化를 極大化하고 그를 「伝說的 英雄」으로 조작·선전하면서 「金日成敎示에 대한 絶對性과 無條件性的 원칙」을 내용으로 하는 「金日成主義」라는 낱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金日成敎示 貫徹전에는 죽을 權利도 없다」고 까지 神格化하고 있다.

이러한 金日成의 偶像化를 위해 北傀는 金日成思想 一色化運動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주민은 물론 軍隊속에도 思想教育을 더욱 철저하게 전개시키고 있다.

本論文에서는 北傀가 실시하는 思想教育이 일반 주민에 대한 것이나 軍隊에 대한 것이나 그 根本에 있어서는 大同小異하므로 일반주민에게 실시하는 思想教育을 먼저 略述하고 다음에 特殊層인 즉 젊은 사람으로 구성된 軍에게 실시하는 思想教育을 설명코자 하는 것이다.

#### 가. 一般的인 思想教育

##### (1) 共產主義 人間形成

共產主義的 思想敎養이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른바 「共產主義的 人間」의 개조에 있으며 흔히 이것은 「文化革命」이라는 구호하에 진행한다.

共產主義的 人間이란 마르크스-레닌主義 思想으로 武裝하여 그

世界觀 아래 자기생활과 思想을 統一한 인간이며 특히 共産党的 全体主義的 지배에 의해 剝製된 인간을 뜻한다.

따라서 共産主義的 인간이 되려면 思想에 의한 「洗腦」 과정을 겪어야 하며 宗教的인 「入教」나 「改宗」과 같은 世界觀的 信條로서의 「마르크스-레닌主義」 學習과 理解가 先行되어야 한다.

共産治下에서 성장하는 靑少年들은 그들의 인생과 세계에 대한 信條形成을 공산당이라는 世俗化된 「代用敎會」에 위임하게 되고 盲目的 忠誠을 맹세하게 된다.

공산주의는 資本主義社會에 대한 적개심의 煽動없이 共産主義 敎養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에 思想力學的 특징이 있으며 어떠한 獨裁도 이러한 敵의 발견과 大衆의 적개심 선동이라는 社會心理的 장치 위에서만 연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로 박제된 共産主義的 人間性의 특징은 ① 마르크스-레닌主義理論의 습득 ② 階級意識과 社會적 연대성의 육성 ③ 集團主義的인 엄격한 규율 ④ 강건한 신체단련 ⑤ 生産的인 勞働人이 되는 것이다.

共産治下인 北傀에 있어서도 「共産主義 人間形成」이란 例外일 수는 없다.

그들 역시 金日成과 공산당을 위해서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人間기제로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北傀는 「共産主義 人間形成」을 위해 思想敎育을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이를 통해 住民들을 「共産主義 人間」



으로 鑄造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소위 「共產主義 人間形成」을 위해 金日成의 偶像化, 사회주의 우월성 과시, 集團主義思想의 고취, 혁명전 통과 혁명정신의 함양, 反美思想의 강조 등으로 思想教育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첫째, 金日成 偶像化에 있어서 金日成을 카리스마적 구세주로 부각시키면서 北韓住民의 모든 희망은 金日成으로 부터 오고 金日成으로 돌아 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北傀는 六七年 이후부터 金日成과 그의 家系偶像化를 본격화시켜 그를 「伝說的 英雄」으로 까지 偶像化시키고 있는 것이다.

둘째로 社會主義 優越性 과시이다.

이것은 共產主義·社會主義가 資本主義보다 우월하다는 것과 北傀가 韓國보다 잘 산다는 내용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住民들을 教養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集團主義에 대한 思想鼓吹이다. 이것은 「黨과 國家와 全體」를 우선시키고 「黨과 國家」를 위해서는 個人은 生命도 불사한다는 희생정신을 요구하며 「하나는 全體를 위하여」라는 口號 아래 주민들에 대한 團結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金日成과 黨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으로 옹호·보위하겠다는 충성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로는 革命傳統과 革命精神의 함양을 들고 있는데 이는 이른바 「抗日 빨지산」이나 「人民유격대원들」 또는 金日成의 革命과

鬪争記를 통해서 全住民들의 革命精神을 함양토록 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革命傳統과 革命精神 함양의 기본 目的은 金日成이 反日 유격투쟁을 전개한 오랜 혁명경력을 가진 「애국자」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認識케 함으로써 金日成의 偶像化 및 神格化를 피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 排外思想 즉 反美思想의 鼓吹이다.

北傀는 美國을 第一敵으로 규정하고 주민들에게 철두철미한 反美思想을 주입시키고 있다.

그들이 못사는 것도 「美帝」 때문이며, 韓國사람이 헐벗고 굶주리는 원인도 「美帝」 때문이라고 허위 선전하면서 그들 주민들에게 對美鬪争의식을 가일층 불러 일으키게 하고 있다.

北傀는 이상과 같은 思想教育을 통해서 그들 後代들을 「共產主義 人間」으로 변조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한주민들을 「金日成과 黨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숨쉬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絶对性 原則과 無条件性 精神」, 「金日成의 敎示를 貫徹하기 전에는 죽을 權利도 없다」는 바로 그러한 「共產主義 人間」으로 만들려고 광분하고 있다.

## (2) 共產主義 人間모형

北傀 金日成이 바라는 「共產主義 人間」의 모형의 구체적인 성격은, ① 權威에 盲從하는 사람 ② 욕심을 부리지 않는 금욕적인 사람 ③ 知的 회의심을 갖지 않는 사람 ④ 한가지 일에 열중하는 目的 指向的인 사람 ⑤ 자기를 버리고 항상 全体를 생각

하는 自我否定的인 사람 ⑥ 金日成과 党에 강렬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共產主義 人間의 「표본」이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傀가 변조해 나가는 「共產主義 人間」은 개성이 없는 기계적인간으로 化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산주의 인간」은 金日成이가 시키는 일이라면 盲目的이며 狂信的으로 처리해 나가는 기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 나. 軍의 思想教育

##### (1) 思想教育의 必要性

北傀 金日成은 一九六三年二月八日 소위 人民軍部隊 政治副聯隊長 以上 幹部들 및 現地 党·政權기관 일군들 앞에서 「軍人들과 근로자들속에서 階級敎養을 더욱 강화할 必要性」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첫째로 자라나는 젊은이들, 즉 軍隊에 服務하고 있는 年齡層들은 『地主·資本家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악독한지 잘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질신도 地主도 資本家도 모르며 착취와 压迫이라는 것을 모르는 젊은 사람들에게 帝國主義나 地主·資本家들이 악독하다는 것을 말해서 잘 이해될 수 있겠는가』가 문제라고 하면서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思想教育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金日成은 또 軍兵士를 포함한 一部青年들속에서 『鬪爭하기를 싫어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저 놀기만 좋아하고 어려

움을 이겨내기를 싫어하므로 점차 나태하고 안일한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교양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들은 안일한 생활에 물젖어 그저 편하게만 살 것을 바라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革命을 하려는 강인한 鬪志를 잃어버리고 말것』이라고 북한의 戰後世代들에 대한 「共產主義 人間型」의 思想教育을 강조하고 있다.

세째, 만일 젊은 세대들이 『敵을 부셔버리고 鬪爭하기를 싫어하며 안일한 것만 좋아하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革命偉業을 계승하지 못하며 우리가 이루어 놓은 업적마저 잃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 勞働者・農民 出身이라고 해서 지난날 고생을 겪은 사람이라고 하여 다 階級意識으로 튼튼히 武装되어 있다고 생각해선 안되며 『고생을 겪은 사람이라 해도 敎養을 받지 않고 오랫동안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压迫받고 천대받던 지난날의 처지를 잊어버리고 점차 안일해지며 계급의식이 마비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안일하고 부화하고 비계급적인 생활기풍은 修正主義的 思想을 끌어 들이는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北傀는 이상과 같은 네가지의 原因으로 젊은 층에 속하는 軍人들의 階級意識이 마비된다고 하면서 對內外的으로 修正主義를 막아내고 그들의 「혁명대오」를 사상적으로 튼튼히 묶어 세우며, 이른바 「帝國主義・地主・資本家 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을 성과적으로 벌이기 위해서는 軍人들에게 「階級敎養」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때 보다

도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思想武裝이 잘되어 있지 않은 군인들이 金日成의 唯一思想 以外の 그 어떤 雜思想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 (2) 軍의 思想教育

軍에 있어서의 思想教育은 軍隊를 조직하는 구성원이 나이 젊은 層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나, 金日成의 唯一思想에 무장이 덜 되어있는 실정으므로 이를 철저히 주입시켰다는 意圖가 있으며 軍隊로서 가지는 特殊性에 맞게 내용이 짜여진 특색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金日成은 政治思想 事業의 중요성에 관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人民軍隊와 全体人民을 政治思想的으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의 人民軍隊는 革命軍隊이며 따라서 그의 위력을 강화하는 기본은 軍人들을 政治思想的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軍隊내의 黨組織들과 社勞育組織들은 軍人들속에 정치사업을 일상적으로 강력히 전개하여 그들에게 人民軍隊의 崇高한 使命을 철저히 인식시키며 그들을 마르크스·레닌主義와 우리 黨의 정책으로 社会主義的, 애국주의와 불굴의 혁명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겠다……… 우리는 또한 軍人들과 人民들이 平和的 기분에 사로 잡히지 않도록 하며 원수들의 侵略策動과 있을 수 있는 戰爭도발에 대비하여 항상 경각성을 높이고 긴장된 태세를 견지하도록 해야한다』고 政治第一主義·思想優先主義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政治第一主義 思想은 戰爭의 形態 또는 兵器의 우수여부를 막론하고, 戰爭勝利의 궁극적 요소는 인간의 政治思想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이러한 思想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그가 共產主義者라는 데에도 기인하지만 六·二五動亂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金日成은 六·二五動亂때 패배한 것은 思想敎養이 不徹底했던 데 기인하였다고 토론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先行시켜야 할 것은 政治思想 事業이라고 하면서 그의 黨을 위해 生命을 바쳐 싸울 수 있는 北傀軍의 思想武裝과 北韓住民이 항시 韓國과 駐韓美軍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戰爭에 떨쳐 나설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政治思想을 第一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政治思想的 기초 위에서만이 비로소 不敗의 軍事力を 키워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金日成이가 軍事政策의 첫 과제로 내세운 것이 政治思想的으로 全民을 무장시켜야만 金日成을 목숨으로 보위하고 共產黨의 「革命위업을 위해 服務하는 崇高한 使命」을 다할 수 있으며 또한 『軍인들이 黨政策의 본질과 正當性を 똑똑히 알 때에만 자기가 나아갈 길을 명확히 찾고 승리에 신심을 굳게 다질 수 있으며, 黨의 정책과 로선을 철저히 擁護 관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北傀軍의 思想敎養 事業에서 重要한 것은 軍人들 속에서 「革命傳統 敎養事業」을 강화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一九三二年四月二五日 「抗日遊擊隊」를 조직하여 日本을

반대하는 鬪爭에서 主体와 自力更生의 혁명적 입장과 自衛의 原則을 固守, 革命群衆의 원호 이외에는 그 어떤 지원도 없는 어려운 조건에서 一五년간의 긴 날을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자체로 해결하여 革命武力을 부단히 확대강화하면서 鬪爭하여 드디어 八·一五해방을 가져왔다고 造作的인 주장을 하면서 이를 철저히 軍人들에게 注入시켜 이를 계승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鬪爭과 戰爭을 좋아하는 北傀가 그들이 戰爭을 할 때는 누구보다도 軍人들이 「帝國主義者들」과 먼저 싸워야 하기 때문에 軍人에게는 階級敎養이 결실함은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그들은 「帝國主義는 우리의 첫째가는 鬪爭對象」이라고 宣言하고 이들의 만행을 軍人들에게 잘 알려주어 적개심을 고취시키고 이들에게 反帝革命思想 특히 反美·反日思想으로 무장시키는 것에 力點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北傀軍內에 「資本主義制度의 부패성과 社會主義制度의 우월성을 철저히 인식」시키는 것이다.

階級은 生産手段의 所有關係에서, 그리고 이로부터 흘러 나오는 生産에서의 地位관계와 勞動組織에서의 역할, 生産物의 분배방법과 그 몫의 量에 의해서 구별되는 社會階層이기 때문에 打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傀는 이를 弁証法的 唯物論에 적용, 人類社會史를 계급 사회로 규정하는 한편, 社會歷史도 상호모순되는 階級鬪爭으로 충만

왜 있다고 설교함으로써 옛 地主·資本家·宗教人·小市民·인텔리  
層에 대한 계급투쟁을 권장할 뿐만 아니라 人民들 속에 남아있는  
낡은 思想잔재와도 무자비하게 鬪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共產主義「낙원」을 建設하기 위해서는 「프롤레타  
리아」獨裁의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이의 실행과정은 착  
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反抗을 鎮壓하는데 있을 뿐만아니라 모든  
軍人들과 근로자들을 개조하여 노동계급화함으로써 온갖 階級的 差  
異를 없애는데 있다고 力說하여 계급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階級敎養에서 중요한 것은 軍人들을 「社會主義的 愛國  
主義思想으로 武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指向하는 全軍人들의 계급의식과 民族的  
自主意識을 결합시키고 자기계급과 제도에 대한 사랑을 자기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결합시켜서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思想으로 그  
리고 革命的 人民들간의 국제적 연대성의 정신으로 무장시키는 社  
會主義的 愛國主義는 모든 근로자들로 부터 支持를 받는 것이며,  
또한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해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혁명적  
낙관주의를 교양하는 것은 세계사적 사명을 지닌 人民들에게 무한  
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社會主義的 道德性의 발현으로서는 「희생  
된 애국자들」의 革命的 義理에 보답하기 위해서야 하며 戰死者가  
족 및 후방가족들을 社會적으로 尊敬하고 더 잘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다.



네째로 北傀軍은 勞動黨의 軍隊이다.

北傀는 軍을 가리켜 「黨의 武裝力」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資本主義 美帝의 軍隊은 少數의 資本家·地主들을 위하여 절대 다수인 근로인민을 抑壓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武力으로 擁護·維持하며 다른 민족과 남의 領土를 침해할 목적에서 조직된 軍隊』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侵略性이나 黨의 軍隊임을 은폐하려 하였지만 北傀軍의 조직 목적부터 바로 그들이 말하는 大資本家·大地主인 北傀黨의 軍隊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朝鮮人民軍은 오직 勞動黨 앞에 忠實하고 오직 勞動黨의 領導 밑에 革命의 길로 나아가며』라고 말함으로써 北傀軍이 북한에서 살고 있는 주민을 위한 軍隊가 아니고, 北傀黨의 군대임을 공공연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 人民軍隊는 黨의 唯一思想으로 확고히 무장되어 있으며 오직 金日成의 革命思想에 충실할 따름이다』라고 선전 또는 교양함으로써 軍隊가 오로지 黨과 金日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도록 鑄造하고 있다.

다섯째로 北傀軍은 大韓民國을 赤化革命하는 軍隊 즉 侵略的인 軍隊임을 자각케 하고 있다. 北傀는 北傀軍을 가리켜 「革命의 武力」이라고 말하고 있다.

革命이란 바로 大韓民國의 赤化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武力에 의해 그들의 궁극적 목표인 對南赤化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諸般 思想教育은 金日成의 명령이라면 목숨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前提하고 軍隊를 革命的 튼튼한 骨幹」인 정수분자로 키워야 하며, 軍隊속에 首領에 대한 忠誠의 열정을 높이는 데 기본을 두고 「唯一思想敎養・主体思想敎養과 革命敎養・階級敎養」을 強化하며 『그들을 革命的 조직생활의 용광로를 통해 단련함으로써 全党과 全社会를 唯一思想化하는 사업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北傀는 軍의 思想敎育을 金日成思想 一色化運動으로 極化시켜 「絶对性 精神과 無条件性 원칙」으로 金日成을 목숨으로 옹호하는 忠直된 줄개로 만들려는데 악랄한 저의가 있는 것이다.

#### 4. 北傀教育文化의 反民族性

##### 가. 教育과 文化

教育과 文化는 相互不可分の 關係에 있으며 政策上 指向하고 있는 目標에 있어서도 同一하다 할 수 있다.

文化의 發達은 文字가 생기면서 促進되었고, 教育은 文化形成發展에 主導的인 役割을 担当하여 왔다. 그리고 文化的인 環境의 變化에 있어서 家族制度, 宗教, 「메스콤」, 藝術 其他의 慣習의 作用面도 크게 浮刻된다.

分斷의 歷史란 條件이 다른 狀況을 造成하고, 그 支配的 指導理念 또는 「이데올로기」의 影響을 받아 文化나 教育政策 역시 體制維持라는 方向에서 設定될 수 밖에 없고 體制維持의 手段으로서 決定的인 役割을 担当하게 마련인 것이다.

分斷 30年 北韓에 있어서의 文化와 教育의 本質은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이라는 大命題 위에 韓半島 赤化統一이라는 戰術的 命題 밑에 動員力量을 強化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文化政策과 教育政策은 赤化統一 指向政策이라는 點에서 그 內容은 革命的 思想的, 階級的인 面에서 鬭爭力量을 기르는데 目的이 있기 때문에 民族的 利益보다 共產主義革命을 앞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政策은 反民族的 指向政策이라는 點에 또한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이를테면 北韓이 6.25 動亂을 일으켜 同族을 殺傷하고도 反民族的 罪責感을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지금껏 武力赤化

統一의 野慾을 拋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民族의 同類意識마저 喪失해 가고 있다는 証拠일 것이다.

여하튼 北韓의 教育·文化政策이 民族의 利益을 外面하고 있는 點에서 그들의 政策的 變化와 앞으로의 展望은 상당히 重要的 意義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겠다.

## 나. 政策的 變遷過程

### (1) 教育政策

教育政策은 그 範圍가 넓기 때문에 여기서는 文化面과 깊은 關係를 가지고 있는 政治思想教育面만을 다루기로 한다.

<表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의 思想教育 變遷過程은 크게 4 段階로 特徵적인 区分을 할 수 있는데 이는 그 時代的 狀況과 政策的 考慮에 對処하고 있다.

첫째 解放以後부터 6.25 動亂이 끝날 때까지는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教養期』로써 北韓에 처음으로 소련式 共產主義가 導入되었으며, 日帝의 殘滓를 一掃한다면서 韓國의 正統的 歷史의 復活代身에 共產主義 思想을 이 땅에 扶植하는데 精力을 기울였다.

더우기 이들은 6.25 動亂을 일으켜 『모든 것을 戰爭勝利를 위하여』라는 口號를 내걸고 南韓에 대한 武力解放에 狂奔하였으며, 學生들은 中學 3 年以上 戰線에 投入시켜 赤化統一의 犧牲物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表1>

北傀思想教育 變遷過程

時 期	期 間	重 点 方 向
社会主義的愛 國主義教養期	解放~ 6.25 動亂	○ 共產主義思想의 導入 ○ 南北解放意識 鼓吹
階級意識教養 期	休戰~ 1958	○ 階級鬭爭意識 鼓吹 ○ 社会主義優越性 強調
共產主義教養 期	1958 ~ 1961	○ 共產主義土着化 推進 ○ 政治思想教育的 体系化
唯一思想強化 期	1961 ~ 現在	○ 金日成唯一體制強化 ○ 革命鬭爭意識 鼓吹

둘째 休戰後부터 58년까지 階級意識教養期로서 時期的 背景은 戰後復旧 3 個年計劃이 始作되었고, 土地 및 私有財産이 沒收되고 農業의 協同化를 強圧的으로 推進하던 때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戰後 人民經濟 復旧建設에로!』라는 口號와 함께 私有財産 沒收에 대한 農民小商工業者들의 反撥과 制度에 대한 反抗意識을 抑壓하고 合理化시키기 위해서는 階級教養을 強化

하여 階級鬭爭을 無慈悲하게 展開치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세계 58년부터 61년까지 共產主義 教養期로써 個人 商工業의 抹殺, 農業의 協同化를 이룩하고 그들은 社会政治, 經濟에서 社会主義的 方式으로 土台를 構築하는데 強力한 政策을 驅使한다.

주요 特徵은 共產主義, 社会主義의 優越性 強調, 共產主義的 改造에 障礙가 되는 個人主義와 利己主義의 排斥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 精神의 培養, 革命的 思想의 鼓吹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唯一思想 強化期로서 61년이후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로 볼 수 있는데, 61년이후 金日成 偶像化가 強化되면서 『党的 思想体系의 確立』을 強力히 推進하면서 소위 『主体思想』으로 가지 내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金日成唯一體制 確立의 苛烈性은 對南赤化統一에 必要한 政治思想的 力量의 集結이라는 点에도 결부되며, 金日成 後繼者의 浮上과도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체로 北韓의 思想教育 變遷過程을 살펴 볼 때 社会主義的 愛國主義에서 階級教養을 거쳐 共產主義 思想의 基盤構策으로 金日成 唯一思想 내지 唯一獨裁體制로 發展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마치 소련革命後 「스탈린」主義로까지 發展하였던 「패턴」과 비슷하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이 안고 있는 脆弱性이 소련에서 「스탈린」格下로 實証된 이상 金日成의 唯一體制로 그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것은 根拠있는 判斷이라 할 수 있다.

(2) 文化政策

여기서 文化政策이라 함은 藝術政策까지를 포함한다.

文化·藝術政策 역시 一貫하여 社會主義·共產主義 建設과 金日成 偶像化에 政策의 基調를 두고 있다.

<表2>에 의하여 政策의 特徵을 3 段階 時期로 나눌 수 있는데

<表2> 文化政策 變遷過程

時 期	期 間	重 点 方 向
指導理念 確立의 時期	解放後~ 6.25 動亂	○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의 導入 ○ 소위 『民族解放鬪爭』 煽動
戰後復舊의 時期	6.25 動亂後~ 60	○ 經濟建設 促進 ○ 6.25 傀儡軍 勇敢性 讚揚
千里馬運動 時期	61 ~ 現在	○ 社會主義競爭運動 煽動 ○ 金日成 偶像化 促進

第1 段階로서는 指導理念 確立의 期로서 解放以後 6.25 動亂까지 를 들 수 있는데 解放과 더불어 共產主義 思想이 導入됨으로써 文化·藝術分野에 있어서도 社會主義的 寫實主義가 導入되어 이에 의한 創作方法이 普及되기 始作하였다.

이 時期의 文芸思潮는 소련의 解放을 讚揚하고 金聖柱를 金日成

으로 化身하기 위하여 偶像化造作에 열의를 올렸다.

46年3月25日에는 소위 『北朝鮮芸術同盟』이 創立되었고 各道에 『芸術工作團』을 組織하여 本格的인 文芸人統합을 서두르게 되었다.

第2段階인 戰後復舊의 時期에는 『戰後人民經濟復舊』라는 当面課題에 따른 煽動事業에 큰 몫을 担当했고 前述한 敎育과 共產主義思想의 土着化에 기여한 바 크다.

또한 6.25 亂亂時의 北僞軍의 勇敢性을 美化시키는데 血眼이 되었었고, 中蘇와 親善에 대한 重點을 두면서 反美思想을 鼓吹시키는데 크게 活動하였다.

第3段階인 千里馬時期에 있어서는 敎育政策과 함께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併進策을 支援하면서 金日成 偶像化에서 主体思想에 이르기까지 金日成 1人體制 構築에 決定的인 役割을 担当한다.

특히 이 時期的 狀況은 소련-東歐의 自由化 傾向이 北韓에 浸透하는 것을 阻止하기 위하여 修正主義의 排擊과 「부르조아」적 『反動文化』와 『復古主義』의 傾向에 대한 強力한 抵抗手段으로서도 動員되고 있다. 이와 같이 文化와 敎育이 時期的으로서 多少 区分되는 것 같으나 그 主要骨幹에 一貫性을 維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 敎育·文化政策의 当面課題

北韓의 敎育의 基本目標은 『後代들을 社會와 人民을 위하여 鬪爭하는 革命家로 共產主義的 새 人間으로 키운다』하고 規定하고



있는 그들 憲法 第 39 條에서 明示되고 있다. 그리고 金日成의 『社會主義 教育의 原理』에서는 各級 教育機關은 『思想革命 遂行을 위한 基本手段의 하나』라고 強調되고 있다.

文化·藝術政策에 있어서도 憲法 第 45 條에 『國家는 民族的 形式의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은 主体的이며, 革命的인 文化·藝術을 發展시킨다』고 그 基本目標을 밝혔다.

또한 金日成은 『75年度 新年辭』에서 『思想教養과 思想鬭爭을 精力的으로 벌려 온 (全體)社會를 主体思想으로 一色化하며 社會의 모든 成員들은 철저히 革命 勞動階級化하여야 한다』고 力說함으로써 그들의 教育·文化政策의 當面課題를 提示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基本目標과 當面課題를 實踐하기 위한 教育의 一般 指針으로서

① 全人民의 共產主義 思想과 黨의 革命傳統으로 武裝시키며, 革命的 勤勞姿勢의 確立 ② 修正主義와 「부르조아」思想에 反對鬭爭하고 復古主義를 排斥한다. ③ 官僚主義와 形式主義를 清算하고, 社會主義 競爭運動을 통한 勤勞意識鼓吹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文化藝術의 基本方向은

① 黨政策을 具現하고 支援할 수 있는 宣傳 煽動能力的 最大動員 ② 共產主義的 人間改造에 積極 參與하고 社會主義 競爭運動에의 勤勞精神 提高 ③ 金日成 偶像化를 비롯한 政治思想 教養에 先導的 役割 등을 들 수 있다.

窮極的으로 그들의 當面政策은 赤化統一을 위한 緊張高潮와 內部的

崩壞의 時間을 延長할 수 있는 唯一體制의 固守에 執着되고 있다  
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 라. 教育·文化政策의 反民族性

反民族性이란 反正統性과 같은 뜻을 지닌다.

北韓에 있어서는 解放後 民族史의 復活 대신에 蘇聯式 共產主義  
의 導入으로 새로운 秩序를 形成해 왔기 때문에 지금 南北間의  
民族史의 側面에서의 異質化는 그 幅이 넓혀질대로 넓혀졌다.  
이는 韓國이 民族史를 解放과 더불어 復活시키고 이를 繼承·發展  
시켜 온데 反하여 北韓이 새로운 共產主義 秩序에 一方的으로 다른  
데 그 根本原因이 있는 것이다.

바로 共產主義 體制下의 모든 秩序가 우리 民族의 利益에 符合  
되지 않는 反民族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듯이 國際共產主義  
運動에 도움만 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마르크스 레닌」主義를 우리나라의 現實에 創造적으로  
適用한 朝鮮勞動黨의 主体思想을 自己活動의 指導的 指針으로 삼는  
다』(憲法 4條)라고 함으로써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金日成의  
唯一思想을 加味한 소위 『主体思想』을 造作 그들의 새로운 教理  
로 採撰하고 이를 固守하고 있는데 이는 民族의 正統性을 抹殺하  
기 위한 合理的 口實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社會主義的 寫實主義』와 『革命的인 文化藝術』을  
強調함으로써 固有 文化, 藝術의 날조와 變造의 事實을 立証해

주고 있다.

그리고 民族文化遺産을 保護하고 그것을 社會主義 現實에 맞게 繼承·發展시킨다(憲法 37條)고 하는 것은 民族文化 遺産에 대한 傳統性을 認定하지 않고 解釋을 달리하거나 歪曲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소련의 作家「시모노프」는 共產主義 文化·藝術의 本質을 『共產主義와 勝利를 위한 鬪爭의 勝利的 結末을 뚜렷이 理解하는 條件下에서 重要한 原則』이라 밝혔다.

北韓의 모든 文化·藝術이나 教育이 革命的 手段으로 動員되고 있는限 反民族性이나 反正統性을 脫皮하지 못할 것은 當然하다.

北韓에 共產主義가 扶植되고 共產主義體制가 더욱 굳어지면서 民族正統性은 더욱 強한 抹殺政策앞에 受難을 당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그 原型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異質的 社會主義 文化의 形成은 南北韓의 統合이라는 問題에 새로운 難題를 賦與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北韓의 挑發을 이겨내야 한다는 理由 가운데 우리의 生存權과 自由를 保障한다는 次元을 넘어 民族史를 지키고 民族文化를 繼承해야 한다는 歷史的 使命感이 더 앞설 수도 있는 것이다.

萬若 北僞로부터 威脅이나 侵略을 이겨내지 못할 때는 民族史는 一時的, 希望을 가질 수 있는 暗黑時代를 밝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영 5千年歷史가 송두리채 共產主義의 새로운 秩序속에 室息하고 말 것이다.

또한 다른 意味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民主主義的 平和統一이 이 땅에서 實現된다면 北韓地域에서 일시 斷切되고 있는 民族史는 復活될 것이며, 韓半島는 새로운 民族史 위에서 民族的 統合을 이룩하게 될 것이다.

어떻든 北韓의 教育·文化·藝術政策이 戰鬥的, 好戰的 基盤 위에서 推進됨으로써 武力赤化革命에 窮極 目標을 둔 이상, 南北韓의 對立 激化는 우리의 一方的 努力으로 解消되기 어려운 것이며, 그들의 反民族的 立場이 固守되지 않을 수 없다고 豫想할 때, 過去 30年 北韓의 構造的 變遷은 民族同質性的 概念規定에 一次的 要素인 血緣關係마저 否認하려고 들지도 모를 일이다.

北韓의 이러한 教條的 立場은 韓民族의 悲劇을 더욱 深化시키는 結果가 된다.

## 5 . 結 論

北傀를 보는 立場에서는 여러가지의 觀点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그 本質的 構造를 思想面, 世代面 그리고 權力面の 세 가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 가지 要因이 北傀의 對南姿勢에 있어서 어떻게 進行될 것인가를 展望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문제를 分析하는 것은 보다 넓은 資料에 근거해야 할 것이나 여기에서는 紙面관계도 있고 해서 具體的인 分析보다도 그 序說的인 면에서 기본 테두리만 잡아 보고자 한다.

여기서 이 문제를 주요시하게 된 것은 北傀가 金日成 1人獨裁體制라는 점이다. 즉 金日成 1人獨裁가 어떤 면에서는 『金日成 1人國家』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金日成은 法的으로나 事實上으로 北韓住民의 모든 主權을 強奪的으로 受任받고 있으며, 모든 權力도 金日成에 의해서 行使하게 되어 있다. 이는 『主席』이라는 制度的 裝置로써 保障되고 있으며, 獨裁의 合理化를 위해 金日成 個人的 思想的 指導的 理念을 온 天地에 갈아 다른 思想의 배태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權力을 行使하고 思想을 내세워 北韓을 통치하며, 權力改編을 중심으로 한 後繼者도 이런 原則의 絶對的 支持者이거나 追從者가 아니면 許容될 수 없다.

때문에 이러한 根本的인 問題가 存在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變化될 것이며, 우리의 對北姿勢에 前提가 되는 그들의 對南姿勢는 과연 어떻게 進展될 것인가를 주의 깊게 觀察해야 할 것이다.

思想的인 側面에서 北傀의 變化는 세가지 段階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金日成 偶像化 段階로 解放後부터 60年代初까지 들 수 있으며, 이 時期는 民族主義者, 反對勢力 등 피의 肅清을 동반하였으며, 6.25 動亂을 일으켜 金日成의 抗日武裝鬪爭史를 날조하는 데 手段으로 삼았다.

둘째 이 때부터 73生까지 金日成의 회감을 전후로 절정에 달한 『主体思想 段階』로 金日成의 偶像化를 넘어 소위 『指導理念』의 뿌리 박기에 혈안이 된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金日成에 대한 思想的 忠誠心이 無限하게 強要되고, 南北對決에 있어서 好戰的 硬直性은 더욱 굳어지게 되었으며, 北韓을 巨大한 超軍國主義 兵營社會로 발판을 굳히게 되었다.

세째로는 『金日成主義 移轉段階』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金日成의 主体思想을 하나의 『主義』로까지 發展시킬 可能性이 짙다는 것이다.

74年 4月 15日 金日成 62回 生日에 平壤放送은 『金日成主義에 끝까지 忠誠할 것을 맹세하자』고 이야기한 바 있다. 金日成主義가 어떤 思想的 理論的 바탕위에 體系化된 合法則性을 가진 것도 아니며 아직까지 具體的, 公式的 용어도 아니지만 최소한 이런 『主義』가 몇가지 事例에서 튀어나오고 있음을 볼 때 그렇게 쉽게 넘어갈 問題가 아니라는 것이다.

金日成主義란 대체로 「마르크스 레닌」主義에 『主体思想』을

牽強附會하고 있다고 우선 볼 수 있다. 만약에 北傀가 金日成主義를 發展시킨다고 보면 向後 10年間으로 보고 이를 北傀 指導理念으로 삼기까지는 (強要) 대단한 극성을 피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그러면 이렇게 『主義』로까지 발전시킨다면 여기서 노리는 점은 무엇인가.

北傀 金日成의 입장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金日成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이다. 偶像化나 主体思想은 아직도 個人崇拜 強要의 때를 벗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主義로까지 發展시켜 더욱 견고히 구축시키려는 企圖가 엿보이며, 특히 全民族의 指導理念으로 昇華시켜 보려는 것은 바로 韓半島 赤化의 長期布石이라 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金日成 後繼者の 指命과 관련지을 수 있다.

向後 10年間을 이 主義로 一色化시킨다고 假定하면 다음 世代論에서도 言及하겠지만 『抗日「빨치산」世代』와 『6.25參戰世代』가 거의 가고 金正一을 中心으로 한 『革命遺子女世代』가 權力의 中樞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金日成의 計算은 「스탈린」死亡後의 1人偶像化가 허무하게 무너진 事實, 中共의 毛沢東 死亡을 눈앞에 둔 權力의 暗闘 등을 보고 결코 全權을 밟지 않겠다는 안간힘이며, 발버둥이라 볼 수 있다.

對南面에 있어서도 그들의 戰略的 手段化는 그대로 보아 넘길 수 없다.

北傀는 『金日成의 革命思想 즉, 主体思想을 더욱 철저히 실현하여 祖国의 統一과 革命의 終국적 승리를 促進하며 世界革命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할 무점고도 영예로운 課業에 나서고 있다.』 (勤勞者, 北傀, 74.7 p.15)고 하고 『위대한 主体思想의 깃발 아래…… 싸우는 南朝鮮人民들이…… 統一祖国의 땅 위에서 北半部 人民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同 p.64)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主体思想이 惹因하는 對南目標도 짐작할 수 있다.

北傀는 解放以後 民族問題를 내세워 對南宣傳의 主題로 삼아 왔다. 6.25前은 韓國의 權力階層이 抗日民族主義者들로 構成된 데 대한 그들의 況日 「빨찌산」鬪爭 經歷으로 맞세워 보려고 한 것이며, 6.25動亂을 일으켜 놓고 『民族解放戰爭論』을 合理化시켜 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6.25動亂을 통하여 그들은 民族을 敵으로 規定하고도 民族問題를 더욱 강조함으로써 그 罪過를 모면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北傀가 내세운 民族에 대해 우리의 심한 抵抗을 받게 되자 그들은 /다른 形態로 이를 變形한 것이다. 즉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은폐하기 위하여 『主体思想』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까지 擴大 傳播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나름대로 『金日成主義』를 韓半島의 指導理念으로 해서 赤化統一을 企圖해 보겠다는 것이며, 여기에는 平和的이거나 武力的인 方法에 있어서도 合理化시켜 보겠다는 對南宣傳에 큰 몫을 두고 있는 것이다.



北傀 住民은 『共產主義的 人間形成』이라는 教育 밑에 鑄型화된 人間으로 育成되어 왔다. 그러나 時代的 狀況에 따라 이들에게 特別히 強調되는 것이 있었고 社會的 環境에 따라 獨特한 意識構造로 形成된 것이다.

權力體系를 中心으로 볼 때 北韓의 世代問題는 다음 세 世代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가. 抗日「빨찌산」世代

이 世代는 거의 60代 이상으로 金日成을 頂点으로 한 그 一例이다. 이들의 成長背景은 소위 30年代 抗日「빨찌산」運動에 參加하였다고 (대부분 臆조이지만) 하는 일종의 『共匪派』다. 이들은 解放과 동시에 北韓 땅에 들어와 金日成 傀儡政權을 세우고 戰利品的인 자리를 차지한 者들로써의 無識한 階層이다.

이 世代는 다시금 6.25動亂을 일으켜 民族의 비극을 자행하였고 새로운 『6.25參戰世代』에게 武力鬪爭에 대한 訓練과 經驗을 갖게 하였다. 이들은 表面上 黨의 最高機關을 차지하고 있어 마치 權力의 核心을 이루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實際로는 金日成 1人支配體制의 둘러리에 불과하며 옛정을 생각한 『호강』의 자리 에 不過하다.

黨政治委員會와 秘書局을 비롯 대부분의 要職에서 元老의 待接을 받을 뿐 모든 權限이 金日成 1人에게 集中되어 있는 狀態下에서 重要한 決定은 金日成과 그가 信賴하는 一部 專門的 「엘리트」

階層에서 提示되고 있다.

이 世代는 不過 數年内 消滅될 것은 뻔한 일이다.

#### 나. 6.25參戰世代

6.25參戰世代는 武装鬪爭 經歷을 가진 者와 가진 者가 아니더라도 이 時代를 經驗한 党 官僚出身이다.

이 世代는 軍部 強硬派와 党官僚出身으로 專門 「엘리트」群을 이루고 있으며, 党執行부와 政務院 기타 政權機關과 企業所 등에서 核心的 일군으로 活動하고 있다.

이 世代는 6.25를 통해 韓半島 赤化統一에 直接 參加했거나 經驗한 者들로서 抗日「빨찌산」鬪爭의 精神을 이어 받았다고 自負하고 있으며 그렇게 教養된 層이다.

#### 다. 『革命遺子女』世代

이 世代는 대체로 40세 이하로 抗日「빨찌산」鬪爭에 參加한 者의 子女(一部는 6.25參戰世代에 編入)들과 6.25당시의 遺子女와 權力層의 子女로서 그들의 口號처럼 『피는 피로써 千百倍 복수하자』는 맹목적인 復讐심으로 불타고 있는 戰鬪的, 狂信的, 好戰的 人間型이다.

이들은 抗日「빨찌산」鬪爭 歷史와 함께 6.25動亂에 대한 經驗을 토대로 하여 소위 金日成 思想까지 곁들여 訓練된 層이다.

이들은 金日成의 親衛隊로서 訓練되고 또 忠誠心으로 가득차 있다.

이 世代는 『萬景台 革命遺子女学院』등 3個 遺子女学院과 『平壤 外國語革命学院』에서 組織的으로 새로운 權力核心層의 後備隊로 키워졌다. 이들은 철저한 軍事訓練과 適性에 따른 教育이 實施된다.

이 世代의 構成은 革命家 6.25 당시 戰死者, 被殺者의 遺子女들과 英雄称号 수여자 및 榮譽軍人子女들로서 核心階層에서도 共產體制 維持에 絶對적인 擁護勢力에 속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北傀의 後繼者 中心權力體制에 대한 根本的인 改編은 金正一을 頂點으로 하는 革命遺子女 世代가 基盤을 確固하게 할 時期로 分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北傀 共產主義 指導理念으로서 金日成主義가 土着化 되고, 革命遺子女 世代가 이 指導理念을 繼承할 수 있는 條件이 成熟되었을 때라고 보면, 向後, 10年 以內에 큰 變動은 없으리라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期間까지 金正一을 中心으로 한 革命遺子女世代는 모든 分野에서 專門的 「엘리트」로 主導權을 잡게 될 것이므로 이들의 成長과 더불어 6.25參戰世代는 金正一을 金日成의 位置까지 끌어올리는 데 前衛的 役割을 担当하는 護衛擁護勢力에 不遇할 것이다. 金正一이 前近代의 偶像化의 對象이 될 수 없다고 보면 北韓 住民에게 金日成主義를 支持시켜 金日成主義를 金正一에게 伝受시킴으로써 北韓 住民의 支持를 동시에 獲得하려는 戰略的 意圖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金正一의 前衛 護衛勢力은 金日成主義를 土着化(北韓 住民에 대한 支持獲得)시키는 過程에서 새로운 奇蹟을 創造(造作)하여 이를 金正一의 公적으로

돌리는 새 形態의 偶像化가 시도될 것이며, 이것은 그의 卓越한 指導力으로 形象化될 것이다.

現「빨찌산」世代가 金日成의 直系이며 金日成에 대한 絶對 追從者들로서 金正一의 側面 支援勢力이며(實權보다 職位上) 副主席으로 발탁된 金東奎(序列 8位)는 抗日「빨찌산」世代이면서 6.25參戰世代를 代表한 金正一의 가장 信賴깊은 後見으로서, 秘書에 進出한 柳章植(政治保衛 및 社会安全担当 秘書)과 함께 親衛 擁護勢力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으로 權力 改編에 대한 열쇠는 역시 秘書局에 進出하고 있는 金正一 즉 人事組織担当秘書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겠다.

이렇게 볼 때 北傀의 思想, 世代, 權力 構造間에는 相互 깊은 關聯性을 띠고 있는 函数關係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튼 金正一의 손에 의하여 抗日「빨찌산」世대의 戰利品的인 자리는 金正一의 支持 擁護勢力인 6.25參戰世代로 점차 메꾸어질 것이며, 그가 父 金日成으로 부터 權力을 引受받을 때까지 黨과 政權機關 및 企業所는 革命遺子女世代(派)로 메꾸어질 것이며 北傀를 維持하는 核心勢力으로 完全히 탈바꿈할 것이다.

金日成主義는 「스탈린」과 毛沢東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며, 靑少年을 社会主義 建設의 『꽃봉우리』라고 強調하고 있는 것은 南北이 斷絶된 後 共產主義的 맹목적인 『人間型』으로 길들어진 젊은 世代가 바로 自己의 權力 後繼로 말아야 한다는 目標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強力한 獨裁權과 指導體制를 引繼받을 革命遺子女世代는 北韓住民을 그렇게 쉽게 끌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強力한 組織力과 對決姿勢는 抗日「빨찌산」世代나 6.25參戰世代에 못지 않게 挑戰的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南北關係를 觀望해 볼 때 北傀體制는 當分間 그들이 배운 것 처럼 『피는 피로써 千百倍 복수하자』는 好戰性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며, 그들의 特性은 軍部나 黨官僚層의 二重構造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軍事訓練으로, 共產主義敎養으로 一貫된 『文·武同時的 性格』을 띠는 部類가 될 것이다.

물론 이들에 比하여 우리 世代는 굳이 말하자면 『敎練世代』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들은 安保側面에서 要請되었지, 北韓처럼 共產主義 革命을 위한 前衛隊, 親衛隊로서 決死隊처럼 戰爭狂이 아닌 것이다.

北傀의 兵營化 爲主의 社會體制가 時代의 潮流에 따라 變할 것은 事實이지만 金日成 思想論에 입각한 韓半島 赤化 目標도 引繼받는 한 우리는 그들의 유연한 態度를 기다린다는 것은 當分간 어렵겠다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을 것이다. 아 물론 우리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고 自由民主主義를 全韓半島에 심기 위해서는 앞으로 더 어려운 挑戰을 克服하여야 할 것이다.

共產黨이 變化되고 世界潮流가 壓力을 加重하더라도 北傀는 敎條主義的 맹신으로 늦춤이 상상외로 느릴 것이다.

이는 소련이 아직까지도 社會的 統制를 늦추지 않고 있는 點을

감안하면 北韓의 變質 展望에 있어서는 앞에서 提示한 여러가지 側面을 充分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南北間의 問題는 北傀의 硬直性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 것이다.